

발행인·박성대/편집인·김정길/주간·한학동/편집·정만진, 홍익선, 홍헌득/발행처·계성학교 총동창회/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053)255-3900
FAX(053)256-4942/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인쇄처·민기획, 홍임호/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 ☎(053)256-8534, FAX(053)255-7831



계성의 우렁찬 함성, 두류벌에 울려 퍼져...

개교100+1주년 총동창가족체육대회 성대히 열려

개교 101주년을 기념하는 제30회 계성 동창가족 체육대회가 2007년 10월 3일 (개천절) 10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C.B팀(49회-58회), O.B팀(59회-68회), Y.B팀(69회-78회)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기 방식에 따라 각 팀별로 3판 양승제의 줄다리기, 15점 3세트의 9인조 배구, 11점 3세트의 6인

조 족구, 여성 가족의 돛지불, 400m 계주, 혼성 2인3각, 크로케 골프 등이 열렸다. 야구장 스탠드에는 천막을 치고 대회를 준비하는 각 기수별 임원들과 본부 요원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 도착한 사람들로 붐볐고, 행사를 위해 준비된 물품들을 싣고 드나드는 차들로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두류공원 곳곳에는 계성 동창 가족 체육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조차 이 날이 계성의 잔치가 있는 날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2면 계속>



도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병 국 (56회)

☎780-140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718-1

TEL : (054)774-8822 FAX : (054)774-8861

E-mail : dowooja@hanmail.net

인사말

우리 모두 한 뜻으로, 다가올 계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



친애하는 계성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던 긴 여름도 결국에는 길옆에 내어 놓은 작은 화분에서 피어나는 국화의 셋노란 향기에 밀려 나고, 아침·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며야 하는 것을 보니 계절이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10월 3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있었던 “계성 동창가족 체육대회”는 100주년을 넘긴 첫해의 행사라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진 행사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원로 동문들이 행사장을 찾아 본부석에 자리가 부족할 지경

이었습니다. 반면에 대회에 참가하는 젊은 기수들의 수가 적어 많은 분들이 염려하였습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억이 넘는 기금을 모았고 장차 50억까지 기금을 늘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들이 우리 계성을 다시 보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거목 계성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만방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창회가 이룬 결실에 대해 칭찬하고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실로 소중한 것은 금전적인 결실보다는 우리 계성인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임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한데 뭉쳐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모교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개탄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학교법인과 동창회 그리고 모교가 하나가 되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 나가 장차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변화

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잊고 있는 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은 평준화 이전보다 더 극심한 교육 양극화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현실 앞에 과거 계성이 누렸던 위상에 대해 늘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과거의 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의 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계성인 여러분!

이제 세상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를 위해 축제를 준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다가올 계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함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몇몇 젊은 기수들이 아직 자리를 미처 잡지 못해 계성동창가족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동창회의 힘을 보여줍니다. 선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선·후배 사이의 그 끈끈한 정 또한 짙은 세상살이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

줍시다.

젊은 후배 여러분! 계성가족의 모임은 한날 하루만에 끝나는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입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신세계에 대한 정보도, 내가 가려고 하는 갈림길에 대한 정보도 이곳에는 넘쳐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너른 들판에서 충실한 알곡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사실들을 나누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른 새벽 반짝하고 열리는 벼룩시장이 아니라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정보의 시장입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젊은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장터가 열리니 앞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잔치에 참가하고 그 잔치의 주인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성 대
(38회·총동창회장)

치어리더 댄스공연, 동문가족 뜨거운 호응 C.B-54회, O.B-65회, Y.B-70회 각각 종합 우승의 영광차지

평소에도 찾는 이가 많은 두류공원은 당일 행사에 참가한 계성 가족들의 차량이 보태져 드넓은 주차장 역시 주차난을 피할 길이 없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이날 1부 진행을 맡은 모교 정원각(63회) 선생의 안내로 입장식이 시작되자 피켓을 앞세우고 각 기수별로 유니폼을 갖춰 입은 참가자들이 입장을 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입장상이 별도로 제정되어 입장상에 신경을 쓰는 기수에서는 풍선을 비롯한 각종 준비물과 분장을 통해 이벤트적인 입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입장상에는 전체 기수가 함께 준비한 흔적이 돋보이는 53회가 차지했다.

입장식이 끝나자 신성택(45회) 전 회장의 개회 선언과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계성의 정신이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이 나라와 역사의 갈 길을 비춰주는 횡불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계성에 축복주

시기”를 기원하는 소신열목사(38회)의 기도가 있었다. 박성대(38회)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장학재단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랑스러운 계성의 정신, 그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계성인이 앞장서자”고 예의 그 힘찬 목소리로 대회 분위기를 띄웠고, 김태동 학교법인 이사장은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자랑스러운 계성 역사를 세계만방에 빛내도록 합시다.”며 축사를 했다. 또 모교 정인표교장(56회)은 “지난해 100주년을 마음껏 축하했던 것보다 101주년의 올해가 더 희망차고 뜻 깊은 해”라며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하며 축사를 했다.

본부석에는 강석교(27회), 이주국(31회), 이주명, 이종노, 권태갑(이상 36회) 박성대, 권수보, 소신열, 김철규, 최태영(이상 38회) 허종중, 김도년(이상 40회), 남장

호(42회), 김덕수(50회) 등 선배님들과 신일회 계명대학교 이사장(44회), 김태동 계성학원 이사장, 김석준(56회, 국회의원), 이인기(59회, 국회의원), 정인표 고등학교 교장(56회), 손용식 중학교 교장(60회), 김재현 고등학교 교장(59회)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준비한 내빈석 자리가 모자라 모두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입장식이 끝나자 이벤트사에서 초청한 6명의 치어리더들이 음악과 함께 댄스공연을 하자 입장식에 참석했던 동문들이 각 기수별 천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며 체육대회의 분위기에 서서히 젖어들었다.

입장식과 오프닝 공연이 끝나자 예년의 그 뜨거운 열기가 다시 달아올랐고 각 기수들은 나이도 잊은 채 마치 고교생으로 돌아간 듯한 열정으로 경기에 임했고 더

러는 열정이 지나쳐 판정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OB팀이나 CB팀에서는 경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자식들 얘기를 안주 삼아 일찍부터 술잔이 오갔고 오랜 세상살이의 곁집을 벗은 참다운 우정들이 술잔과 더불어 동기생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그 동안 만나는 횡수가 찾아서인지 동기생들의 부인끼리도 둘러 앉아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이날은 날씨 또한 전형적인 가을의 모습으로 돌아와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치어리더들은 끝까지 경기 진행과 응원을 도우며 잔치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선배들이 매년 CB팀에서 1개 기수씩 졸업하는데 새로 총동창회에 가입하는 후배 기수들이 줄어들어감에 따라 이 날도 YB팀에 속하는 후배 기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총동창회본부나 선배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다.

한편, CB팀 종합 우승은 54회, OB팀 우승은 65회, YB팀 우승은 70회가 각각 차지했다.

글·한학동(64회)





동산 신태식(18회) 전 모교 재단이사장 3주기 추모예배 및 시비 제막식 거행

“어진 뜻은 / 어진 뜻으로 이어지고 / 거룩한 말씀은 / 거룩한 말씀으로서 영원한 /
사람의 / 큰 길을 / 한결같이 / 꽃꽂하게 걷는 분을 / 나는 평생 / 지켜보아 알고 있네”(후략)

신태식(18회) 전 모교 재단이사장의 3주기 추모예배와 시비 제막식이 2007년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계명대 아담스채플 대예배실과 동산관 앞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이날 추모예배는 허도화 계명대 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묵도와 찬송에 이어 “계명대학교의 영원한 스승이 하늘 나라로 가신지 벌써 3년이 지난 오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큰 뜻을 새기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으며, 시대가 어려울수록 선각자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사회자의 기도가 있었다.

성경 봉독에 이어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 황석훈, 계성고등학교 학생회장 김보영, 신명고등학교 학생회장 최주진 등의 헌시 낭송이 있었으며 이어 계명대학교 이화영, 하석배 교수와 계명문화대학 김정화 교수의 추모가가 이어졌다.

이진우 계명대학교 총장은 추모사에서 “신념의 교육자이신 고인이 품었던, 교육에 대한 원대한 꿈과 불굴의 의지는 황무지였던 이곳 동산을 태산으로 변하게 하였으며, 황무지를 개간한 고인의 개척 정신은 이 캠퍼스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또한 오늘 모인 우리들은 그 업적을 기리며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 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신일희 계명대학교 재단이사장은 유족대표 인사에서 “오늘 추모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며 여러 내빈과 옛 동료 여러분과 계명, 계성, 신명가족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하고는 “앞서간 선친과 선임자에 대한 생애를 감사하며, 오늘 이 추모예배는 그 꿈을 우리 후대들이 이루려고 하는 꿈의 표시인 것이며 우리 학교를 전 인류문화사업에 필수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추모예배는 동로교회 박기백 목사의 “아름 가진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위로와 안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 달라”고 하는 간절한 축도가 있었다.

이날 추모 예배에 이어 참가자는 계명대 도서관 앞 광장으로 이동하여 「신태식 시비」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동산 신태식 박사 초대 명예총장 추모시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설계하고 계명대 서예과 김양동 교수의 글씨로 새긴 이 시비에는 박목월(25회) 시인이 고인의 회갑을 축하하며 쓴 헌시(獻詩)「나의 노래」 전문이 새겨졌다.

시비의 크기는 하단부가 47cm×320cm×102.5cm이고, 상단부가 45cm×250cm×123.5cm이다.

이날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신진욱 협성재단 이사장, 박성대 총동창회장, 장영철 전 노동부장관을 비롯, 전 동료이기도 했던 김문선 선생을 비롯 계명대학교 계성, 신명학교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 시비 제막의 뜻을 기렸다.

글 · 이수남(50회 · 소설가)



▲ 계명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시비 제막식 모습.

나의 노래

어진 뜻은 / 어진 뜻으로 이어지고
거룩한 말씀은 / 거룩한 말씀으로서 영원한
사람의 / 큰 길을 / 한결같이 / 꽃꽂하게 걷는 분
을 / 나는 평생 / 지켜보아 알고 있네
의로운 일을 위해서 /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분의 환한 눈 / 시련 속에서 / 굳게 담겨있
그분의 / 인내와 의지 / 나는 옆에서 보았음으로
알고 있네 / 만일 / 나의 證言이
미약한 것이라면 / 우리 母校의
돌덩이 하나 하나가 / 불꽃이 되기
인물일 / 증명해 줄 것
그분이 이룩한 사업이 /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나는 / 추앙할 도리 없지만 / 啓聖을 거쳐 갈
조국의 젊은 세대... / 그 무한으로 뻗어
아득한 대열이 / 두고 두고 / 밝혀주리라 믿네
그분이 /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 그것으로
하느님이 / 일일이 치부해 두셨으리라 믿네
은빛 빛나는 / 그분 / 등뒤에 / 환한 빛이
어리는 것은 / 나와 같은 詩人의 / 환상이지만
사람으로서 / 성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꽃꽂하게 또한 꽃꽂하게 / 큰 길을 가는 것
나는 / 옆에서 뒤에서 멀리에서
지켜보아 알고 있네 / 앞으로 /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지 / 그것으로 하느님의 뜻이지
만 / 오늘 / 그분 / 머리칼한 오리카다
의로운 그 사람과 / 원대한 꿈과 / 신이 깨우쳐 주
시는 / 슬기로움으로 / 빛나는 것을 / 나는
눈을 감고도 / 알 수 있네

계성금융포럼 제3차 모임 10월 17일 열려

계성금융포럼이 공식 출범하고 세번째 모임, 8월의 골프모임을 포함할 경우 네번째 모임이 10월 17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뜻 깊게 열렸습니다.

특히 이 날의 모임은 박성대 총동창회장이 계성금융포럼이 운영되고 있음을 아시고 직접 Hosting해 주신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태동 재단이사장과 조준제 재경동창회장님께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더욱 모임이 빛났습니다. 포럼에서는 임주재 회장을 비롯하여 약 삼십여분의 동문들이 촉박한 일정공사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포럼회원들의 개인소개와 함께 회장단의 인

사말이 있었습니다. 인사말을 통해 동문회장님들과 재단이사장님께서 계성학교 및 계성동문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동문간의 단합과 교류가 계성학교 및 계성인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일깨우는 자리였습니다.

인사 후 회식은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말미에 계성인의 기상을 기리는 교가 제창도 두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회동을 통해 계성금융포럼을 더욱 더 뜻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박성대 총동창회장님, 김태동 재단이사장님, 조준제 재경동창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

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장학기금 납부자

(2007. 7. 1 ~ 2007. 10. 31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성명	기수	납입금액	성명	기수	납입금액
김기웅	58	1,000,000	변재진	62	100,000
장성훈	23	100,000	이광호	62	100,000
김영만	49	100,000	박찬동	71	50,000
하죽봉	50	100,000	구종회	55	10,000
김종문	52	100,000			
총합계		1,660,000			

100주년 사업 부담금

(단위 : 원)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27		48	500,000	69	
28		49	500,000	70	1,000,000
29		50	500,000	71	1,000,000
30		51	500,000	72	1,000,000
31	100,000	52	1,000,000	73	1,000,000
32	100,000	53	1,000,000	74	500,000
33	100,000	54	1,000,000	75	500,000
34		55	1,000,000	76	
35	100,000	56	1,000,000	77	
36	100,000	57	1,000,000	78	
37		58	1,000,000	부산지부	3,000,000
38	100,000	59	1,000,000	울산지부	3,000,000
39	100,000	60	1,000,000	시카고지부	500,000
40	200,000	61	1,000,000	뉴질랜드지부	500,000
41	300,000	62	1,000,000	구미지부	500,000
42		63	1,000,000	울진지부	300,000
43	300,000	64	1,000,000	인천지부	1,000,000
44	300,000	65	1,000,000	안동지부	1,000,000
45	300,000	66	1,000,000	서울지부	10,000,000
46	300,000	67	1,000,000	철곡지부	300,000
47	500,000	68	1,000,000		
총합계		47,000,000			

회보구독료 납부자

(2007. 7. 1 ~ 2007. 10. 31까지 입금내역임)

> 100,000원

염주섭(40회), 최병부(49회), 이시원(50회)
윤동한(52회), 무명

> 50,000원

백승달(41회), 남인식(50회), 배창규(65회)

> 40,000원

장성열(52회)

> 30,000원

이무호(42회), 양화송(43회), 홍신화(44회)
윤태일(55회), 유시경(57회), 김창호(74회)

> 20,000원

이종현(39회), 윤기호(44회), 이우현(44회)
전재수(45회), 송명준(46회), 정주환(47회)
박은(49회), 강익경(50회), 이병욱(51회)
김태진(52회), 오태호(53회), 진기창(57회)
이택봉(59회), 김동수(59회), 정원호(60회)
이중우(62회), 김성규(63회), 최재경(63회)

장학기금 및 회보 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07. 10. 31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기별	장 학 금			회 보 구 독 료	
	기별부담금	개인	인원	금액	인원
23		500,000	5	70,000	5
26				50,000	1
27		5,000,000	1		
29	300,000	1,000,000	1	30,240	3
30	300,000	200,000	2		
31	1,000,000	200,000	2	30,000	2
32	300,000	300,000	1	40,000	2
33	1,500,000	300,000	2	10,000	1
35	200,000	150,100,000	2	170,000	7
36	300,000	100,000	1	160,000	14
37		15,100,000	2	260,000	7
38	1,600,000	36,600,000	9	80,000	6
39	1,000,000	900,000	4	830,000	49
40		7,600,000	11	380,000	14
41	5,000,000	11,245,000	5	160,000	8
42	5,000,000	16,600,000	13	460,000	23
43	5,000,000	4,400,000	16	200,000	5
44	5,000,000	27,930,000	28	1,010,000	42
45	7,000,000	48,930,000	16	680,000	32
46	7,000,000	8,700,000	15	320,000	24
47	7,000,000	42,050,000	11	430,000	23
48	7,000,000	1,750,000	7	270,000	10
49	7,000,000	12,150,000	14	580,000	21
50	10,000,000	51,800,000	9	920,000	29
51	10,000,000	21,900,000	9	1,010,000	70
52	10,000,000	142,300,000	25	1,220,000	52
53	10,000,000	115,200,000	20	1,150,000	65
54	10,000,000	3,350,000	12	1,130,000	70
55	6,000,000	2,610,000	14	600,000	37
56	10,000,000	69,330,000	21	1,300,000	64
57	10,000,000	480,000	4	770,000	45
58	10,000,000	13,860,000	14	890,000	31
59	10,000,000	1,150,000	7	650,000	32
60	10,000,000	10,220,000	21	1,070,000	67
61	10,000,000	3,210,000	4	380,000	26
62	10,000,000	400,000	4	450,000	18
63	10,000,000	1,620,000	8	670,000	49
64	10,000,000	12,580,000	16	930,000	51
65	10,000,000	300,000	3	400,000	24
66		1,000,000	6	330,000	21
67		100,000	1	180,000	7
68	10,000,000	600,000	4	470,000	34
69		650,000	8	520,000	26
70	7,000,000	300,000	4	120,000	6
71	7,000,000	620,000	8	380,000	28
72		240,000	1	100,000	8
73		130,000	2	140,000	9
74	7,000,000	200,000	3	60,000	4
75				60,000	3
76				10,000	1
78		50,000	1	20,000	2
원주지부		400,000	13		
고령지부		300,000			
재천지부		400,000			
포항지부		3,000,000			
영천지부		1,000,000			
시카고지부		2,000,000			
구미지부		500,000			
영덕지부		500,000			
경주지부		1,000,000			
울진지부				30,000	
무명		140,000	3	665,000	37
계	248,500,000	855,095,000	416	22,845,000	1,217

> 10,000원

장성훈(23회), 김세만(42회), 서상봉(42회)
박승욱(45회), 구본탁(46회), 박해수(46회)
이석주(46회), 이중우(47회), 김영만(49회)
김시생(51회), 김성식(51회), 성기조(51회)
이재광(51회), 구자경(53회), 강성길(53회)
홍종길(54회), 허정(54회), 도정호(54회)
전석진(54회), 박성화(55회), 구종회(55회)
손덕곤(56회), 김대진(56회), 전석중(56회)
정시현(57회), 배광순(57회), 박형수(57회)
허만진(58회), 최홍식(59회), 장순걸(60회)

이광호(62회), 정영진(62회), 정한관(63회)
손규호(63회), 신현묵(66회), 박경수(66회)
이호(68회), 장영형(68회), 유병혁(69회)
무명 2명

계74건 1,640,000원(누계:22,845,000원)
※혹 착오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구독료를 보내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발전하는 동창회보가 될 수 있게 동문들의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계성학교가 명문학교로 우뚝 선 것은 은사님들 덕분”

입학하자마자 6·25전쟁, 학교 빼앗기고 서문교회에서 수업

지난 10월 26일 저녁, 43회 동기회(회장 양화송)의 정기총회가 시내 영남별장식당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 명의 대구지역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멀리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동희 회원과 서울의 도창희, 서희범, 김준곤 회원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다.

43회 동기회는 모임이 무척 이색적이다. 우선 성우회와 비슬회, 락우회라는 3개의 모임이 있어서 각각의 회원들이 매월 행사를 가지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날처럼 합동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각 모임은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우회는 정문원 회원이, 비슬회는 김상기 회원이, 락우회는 주해호 회원이 각각 회장을 맡아 우정과 친목을 위해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43회 동기들은 전쟁이 나던 해인 1950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195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생활이 순탄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날 모임에 참석한 동기회원들은 한결같이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되돌리며 어려웠던 학창시절의 감회에 젖어들었다.

“입학하자마자 전쟁이 났지. 본관건물에 육군 제27병원이 들어왔어. 군인들이 막 죽어 나갔지. 우리는 학교를 빼앗기고 서문교회에서 수업을 받았어. 그러다가 학교 운동장 구석에 바락라 임시건물을 짓고 맨땅에 앉아 공부를 했지. 우리가 본관에 들어간 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지.” 학교 다닐 때 유도 선수를 했었다는 이길순 회원의 회고였다.

이에 옆에 있던 김영일 회원도 거들었다. “나는 탁구 선수를 했는데 전국대회에 나가 종합우수상을 받고 시내 행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지금 동산과출소 옆골목에 있는 대화루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짬뽕과 울면을 얻어 먹었었지.”

“맞아. 그때 참 어려웠어. 나는

약목에서 기차통학을 했어. 전쟁 중이라 기차가 울게 다녀야지. 기차가 연착을 해서 학교에 가면 모두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거야. 그냥 출석부에 ‘出’자로 고치고 나온 적이 많았었지. 28년 동안 교직에 있었다는 김영훈 회원의 말이였다.

그러자 비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YWCA에서 탈북자 새터민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상기 회원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학교 신문인 ‘계원’에 글을 한편 썼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죽어서 산에 묻고 내려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야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 그 소감을 신문에 올렸지. 기독교 학교여서 큰 문제가 됐지.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곤란을 당했었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은사들의 추억담으로 이어졌다. 먼저 양화송 회장의 감회가 시작되었다.

“그때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참 많았어요. 중3 때였는데 몸이 아파서 며칠 학교에 못 나간 일이



▲ 영남별장식당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43회 동기들.

호, 김상열, 정성표, 유병석 선생님 등등 참 대단했었지. 이극찬 선생님의 “정치학 개론” 등은 지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말과 채플시간에 신태식 선생님의 ‘아니오 정신’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

제아카데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금도 매주 철학연구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도창희 회원은 지난봄에 미국 LA에서 에피포트 문학상을 수상하였는가 하면 9월에는 인도 세계시민대회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또한 김병진 회원은 계성학교 이사로서 선대로부터 이어온 장애자 시설인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사업을 왕성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43회 동기회는 지난해 모교 개교 100주년과 함께 졸업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기회에서는 지리산 노고단으로 산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동기들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11월에 친목 산행을 다녀오기로 의견을 모았다. 깊어가는 가을 밤,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 시절을 추억하는 43회 동기들의 얼굴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글 · 홍억선(63회)

재학시절 은사님들, 인품도 훌륭했고 실력도 최고

43회 동기들 ‘스승에 대한 추억담’ 끝없이 이어져

있었지. 우리 집이 다사인데 거기까지 담임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찾아오셨어요. 국어를 가르치던 서석은 선생님이셨는데 거기가 어디야? 예전에는 그런 애정을 가진 선생님이 많았어.”

그러자 은행지점장을 지낸 진인태 회원이 말을 받았다. “돌아가신 이만택 선생님의 제자 사랑도 특별했지. 선생님택을 찾아가면 꼭 목욕을 시켜주셨어. 밥도 해주시고 잠까지 재워주셨지.”

“맞아. 그때 선생님들께서 인품도 훌륭했었고, 실력도 최고였어. 차기백, 이극찬, 노명식, 김영

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야. 노명식 선생님의 토인비 연구는 또 어땠고?”

양화송 회장의 말에 오한익 회원이 말을 보태었다. “당시에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도 최고였지. 경북고, 사대부고, 경북여고에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모두 옮겨와서 그 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할 정도였어. 물론 6.25사변 중이라 서울에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이 대구에 피난을 와서 정착한 영향도 있었지.”

“그때 선생님들은 교육 철학이 있었어. 이극찬 선생님의 ‘너

해.’ 오랫동안 교직에서 근무했던 유병훈 회원은 남다른 감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43회 동기들의 스승에 대한 추억담은 끝없이 이어졌다. 결론은 ‘100년 역사의 계성학교가 명문학교로 우뚝 선 것은 좋은 교육자가 계셨기 때문이다.’로 맺어졌다.

고회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43회 동기 중에는 현직 시절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회원들도 많다. 계명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지낸 백승균 회원은 대한철학회 이사장으로서 운



보람회계법인

www.boramcpa.com

경영학박사 / 공인회계사

대표이사 이진복 (69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701호

TEL : (053)475-0380 FAX : (053)475-0383

H.P : 016-506-9602

E-mail : leecpa63@hanmail.net

인 터

한국 수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최고의 문장가

영문학 박사로서의 이론과 걸작을 창작해내는 작가로서의 실재를 절묘하게 결합

도 창 회 (43회)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회장



시집 “혼불”의 6권, 장시집 “영혼의 연가”와 “장송비가”, 수필집 “겨울을 앓는 사람”과 “밤별”의 3권, 논저에 “수필문학론”, “한국현대수필문학사”, “영미 애송시 감상”, “영미 연극론”의 1권의 저서를 낸 문장가.

충청북도 보령군의 2만평 예술공원에 시비가 세워져 있는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전국 회원 4천명) 회장.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하여 현재에도 한국신문예협회 회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이사, 수필창작을 위한 작가회 회장, “문예한국”을 위시하여 전국적 문학지 21종의 회장, 고문, 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명사.

민족문학대상을 비롯 11개 문학상을 수상한 문인. 드디어 2006년 4월 4일에는 일본국 일본문화진흥회로부터 국제문학공로 훈장을 수령한 저명인…… 그는 누구인가? 도창회(都昌會), 계성이 낳은(43회) 일류 문인이다.

도창회 동문은 1937년 4월 15일 성주에서 태어났다. 벽진초등학교와 성주중학교를 마치고 계성에 진학하였으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에서 학문에 정진한 후(문학박사) 1964년부터 대학에서 제자들을 길렀다. 문장력만이 아니라 전문적 연구능력과 강의능력이 뛰어난 그는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다른 대학의 초청을 받아 10여 대학 학생들까지 가르쳤다. 수필가로 문단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도 1964년 수필 ‘여자의 발톱’과 ‘기구(祈求)’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문학평론가 공덕룡(전 단국대 부총장)은 도창회 동문을 “40여년간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서양수필을 가르쳐온 때문에 나름의 수필이론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수필을 구축하는 사람”이라면서 “진실을 향한 외골수의 휴머니티”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도창회 동문을 두고 문단에서는 “한국 수필의 대부”로 칭송하고 있다고 한다.

도창회 동문은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이후 전라도 장수에서 3년 8개월, 강원도 동해시 백령봉 아래에서 1년 6개월 등 심심산중과 서해 대부도 등 벽촌과 오지에서 수필과 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창작을 위해 속세를 등진 채 해와 달과 별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학문에 바쳤으니 이제 예술을 위해 귀한 시간을 투여한들 무에 잘못이라. 일찍이 그의 재질과 품성을 인정한 은사 양주동 선생은 도동문에게 아호를 무원(無源)이라 지어주었다. 스승인 자신(아호 无崖, 막힘이 없다는 뜻)의 뒤를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문통(文統)을 도도하게 일구어줄 것을 권면하신 것이다. 스스로 “국보”를 자칭하신 양주동 선생께서는 도동문에게 언제나 학점을 99점만 주면서 “100점을 주면 국보가 바뀌니 나머지 1점은 내가 죽은 뒤에 받게”하고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매우 겸손하다. 오늘날 한국 수필문학의 대표적 문인이라 할 수 있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지만 어느 워크숍 자리에서는 “근 40여년 동안 수필을 300편 이상 집필했지만 그 중 꼽을 수 있는 것은 10여편에 불과하다”고 말하여 창작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론과 창작 양면에서 국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위치에 있지만 겸허함을 잃

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래서 문학평론가 공덕룡은 “대개는 인간과 그가 쓴 글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도창회를 잘 아는 나로서는 그의 작품을 읽으면 그의 인격과 그의 수필이 ‘그 사람의 그 글’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한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그의 글을 보여주는 것이 왕도이자 진수이다. 지면사정상 그 일이 그리 쉽지 않을 뿐 그 어떤 찬사보다도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설득력을 발휘하는 ‘작가 해설’이다. 그래서 여기 약간의 본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절모를 멋지게 쓰고, 남들이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붉은 티셔츠와 상의를 차려입은 그를 화려하게 표지인물로 크로즈업한 “문예한국” 2005년 여름호에 게재된 수필 “竹切聲”의 일부이다.



▲ 국제문학공로훈장 수상시.

“竹切聲”은 대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를 모티브로 한 걸작이다. 앞의 일부를 읽어보자.

<(전략) 반평생 넘게 도심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릴적 시골에 살면서 들은 가장 귀한 자연의 소리를 잊지 못한다. 도시에 살면서 무슨 짜증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면 이내 이 신성한 소리를 혼자 머리에 떠올리고 내 마음을 평정

대나무는 예로부터 고절(孤節)을 상징하는 나무다. 별로 옆가지를 달지 않고 외곬로만 곧게 자라 그 성품은 가히 고절한 선비에 비유하였고, 부러질망정 굽히지 않는 그의 기개는 충신의 충절을 나타내고, 그의 잎은 사철 푸르려 때운 풍상(風霜)에도 꺾이지 않는 아녀자의 정절(貞節)을 상징하였다.

요새도 세상의 탁음(濁音)을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창회의 수필은 하나하나 읽게 되면 눈이나 생각을 딛 곳으로 돌릴 수가 없다. 그만큼 독자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무슨 힘이 있다는 뜻이다.

그가 수필에 대해 갖는 애정만큼이나 그는 그의 수필창작에 능란한 솜씨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수필을 문학으로 존속하게 하는 솜씨에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평하게 된다. 그는 한 생 대학에서 서양수필을 강의해 오면서 수필의 이론과 실재에 통달한 작가이다.”

다시 한번 그가 받은 상을 살펴본다. 문예한국 대상, 한맥문학 대상, 좋은문학 대상, 한국신문대 대상, 허균문학 대상, 탐미문학 대상, 민족문학 대상, 시사문단·문학세계·국제문학·열린문학공로상 및 감사패 수상, 일본국 훈장 포상…… 그가 한국문학 진흥을 위해 직접 뛰고 있는 현장도 살펴본다. “문예한국”, “문학세계”, “21문학”, “지구문학”, “신문예”, “한맥문학”, “좋은문학”, “해동문학”, “시사문단”, “문예사조”, “수필시대”, “한국수필가”, “수필문학”, “수필세계”, “국제문학”, “열린문학”, “문예운동”, “월간문학”, “육필문학”, “한겨레문학” 등 무수한 문학잡지를 살리기 위해 회장, 주간, 고문, 자문위원으로 희생 봉사하고 있다. 과연 그는 계성이 낳은 ‘한국 명작수필 현장의 1위(시인겸 수필가 안재동의 평가)’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글 · 정만진(61회)

“300편 넘게 썼지만 마음에 드는 작품은 10여편뿐”

‘无崖’ 양주동이 애제자 도창회에게 준 아호 ‘无源’

한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대 부러지는 소리다. 한적한 시골 대숲가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한밤중에 대나무가 꺾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늘을 찌를 듯이 꽃꽂이 자란 대나무들이 밤새 내린 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것이다.

사방이 고요한 밤중 이 대나무의 통대가 부러져 내는 굉음(轟音)은 대단하다. 곁에서 들으면 마치 벼락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이 소리는 사방 10리 밖 근동까지 들리는 것이다.

밤새 새록새록 흰 눈이 내려 댓가지마다 쌓여 마침내 대 끝이 휘어 어저귀니없이 부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 연약하고 부드러운 눈송이에 그 큰 왕대가 꺾이는 것을 보면 작은 힘이 모여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싫어하여 속세를 떠나 곧고 바르게 한평생을 살고자 하는 선비들은 집 울안에 대나무를 심어놓고 미풍에 떠는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산다. (하략)>

전문을 게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니, 도창회 동문의 수필 300편을 두루 소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겸양스레 말한 10여편은 우리 동문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문학평론가 강범우의 해설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완전한 금과옥조이다.

“분명히 그의 수필을 읽고 있으면 독자가 그의 글 속에 빨려들어갈 만큼 자기 특유의 매력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이런 매력 같은 것이 그를 대가다운 면모로 있게 함이 아닌가 한다.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판전을 피우게 되면 그 수필은 별 불일없는

특별기획

등사한 독립선언문 들고 칠곡, 안동까지 달려가 배포

계성의 교사와 학생들이 일심단결로 일제에 투쟁할 때 맨앞에 서서 활약



박 태 현 (8회) 동문

경북 지방에도 3·1운동의 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물론 대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3월 8일, 9일, 10일 연이어 1,800명 정도의 시위대가 독립 만세를 외쳤다. 3월 11일에는 영일과 비안에서, 3월 13일에는 칠곡과 경주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16일에는 안동, 비안에서, 17일에는 안동, 18일에는 안동, 의성, 영해, 영덕, 병곡(영덕)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19일에는 안동, 안평, 도리원, 영해에서 일어났다. 20일에는 창수(영덕)에서, 21일에는 신덕(안동), 편향(안동)에서 일어났다. 그 후에도 독립만세운동은 대구, 달성, 영천, 경부, 영일, 영덕, 영양, 청송, 안동, 의성, 칠곡, 김천, 상주 등지에서 계속 일어났다.

당시 독립만세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추세력은 계성이었다. 이제 그 사실은 어지간한 사

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 되었다. 역사의 기록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오미일평(五味逸平)의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에서 3·1운동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모두 76명이다. 그 중에서 계성학교 학생이 35명, 계성학교 교사가 5명이다. 단순 수치로 비교해도 전체 실형 복역인사 중 절반 이상이 계성인이다.

일제 법원은 계성학교 교사 김영서(38세), 백남채(33세), 최경학(30세), 권희운(49세), 최상원(30세)을 실형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판결문은 또 학생들의 이름도 사정없이(!) 나열하고 있다. 김삼도(22세, 6년생), 정원조(6년생, 22세), 박태현(21세, 5년생), 이승욱(22세, 5년생), 최영학(4년생), 김재범(20세, 3년생), 박성용(17세, 3년생), 박재곤(20세, 3년생), 박

몽포(18세, 3년생), 이어석(20세, 3년생), 손치봉(21세, 3년생), 나상기(20세, 2년생), 정인엽(19세, 2년생), 허방(21세, 1년생), 장해동(19세, 1년생), 이석도(17세, 1년생), 장봉수(17세, 1년생), 이성해(17세, 1년생)……

판결문은 학년별로 일목요연하게 학생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있다.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도 보인다. 나이가 어려도 학년이 높은 경우도 보인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학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성학교 생도 허성도(17세), 계성학교 생도 이만이(20세), 계성학교 생도 이창순(25세)…… 식

의사"를 가지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박태현은 계성학교의 교사 백남채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소사에게 맡겨둔 것을 받아 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특히 큰장날인 3월 8일을 기해 군중이 운집한 때에 맞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시장으로 가서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를 지휘하기 위해 학생복을 벗어던지고 한복을 입거나 장꾼차림으로 변복했다. 밤에는 독립선언서를 추가로 인쇄하여 칠곡까지 가서 배포하였고, 심지어 안동까지 달려갔다. 일제의 경계가 점점 심해졌

는 비밀품이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생도가 달라고 할 때에 주라고 말하므로 그것이 독립선언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맡아 두었다가 (독립운동이 벌어진 날) 생도 심문때, 박태현 두 사람이 달라고 하므로 그 전부를 주었다. 기숙생이 전부 소동에 참가하였는지는 모르나 식사 후 기숙사에 가보니 기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박태현 등 계성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일심동체로 만세운동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복심법원(현재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자. 학생 중 최고의 형을 선고받은 박태현에 대한 부분이다. "피고 박태

독립운동 참가학생 중 최고 무거운 징역형 언도받아 독립후 칠곡군수, 부산시 인사행정과장으로 사회봉사

이다. 어쨌든 17세부터 25세의 계성학교 학생들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검사 장미계삼(長尾戒三)은 "피고 이만집 징역 3년, 백남채, 최상원, 김영서를 징역 2년, 최경학, 권희운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주문하고 있다(계성학교 교사들이 최고의 형을 받고 있다). 전체 피고 중에서 박태현은 징역 1년형을 주문받고 있다. 학생 중에서는 최고형이다. 박태현, 당시 계성학교 5학년이다.

박태현은 1919년 3월 일경에 체포된다. 물론 모진 고문을 받고 온몸이 피멍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다. 검사가 1년을 구형하자 판사도 1년 언도로 맞장구를 치고 박태현은 대구형무소로 간다. 박태현은 출옥 후 평양 숭실대학 문과 1년을 수료한 후 서울 연희전문 상과를 졸업한다. 1927년 교회 장로로 장립되고, 해방 후 칠곡군수와 부산시 인사행정과장을 역임한다. 1899년 7월 14일 출생하여 1974년 4월 1일 타계하신 계성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일제 검사가 당시 박태현 학생에게 징역 1년을 주문하면서 덧붙인 이유를 한번 읽어본다.

"피고 박태현은 3월 10일 오후 4시 30분경 동부 덕산정 시장에서 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 한국 독립 만세라고 쓴 구 한국 국기를 휘두르며 한국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 검사의 공소문은 또 박태현이 그날 하루만 독립만세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연속의

다. 박태현 등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부를 적당한 기회를 찾으며 계속 시기를 엿보았다. 서문시장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다는 첩보를 듣고 있던 일제 경찰은 시장과 출소와 남성정과출소에 순사를 증원하여 대비하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되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어져 시간이 없다. 박태현 등 학생들은 한국독립만세라고 쓴 구 한국 국기를 휘두르며 목청높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계성학교 생도들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장을 휩쓸며 "만세"를 부르짖자 군중들도 크게 호응하기 시작했다. 결국 두 시간 남짓 지난 오후 5시경 박태현 등 학생들은 모두 일경에 체포되었다.

다시 판결문을 읽어보자. "(만세운동 당시 사용된) 기(旗, 이하 괄호한 내용은 필자가 첨가한 것임)는 박태현이 그 전날 (계성학교 생도) 심문태에게 만들라고 맡"한 바 있으므로 "박태현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되며" "교사 백남채가 선언서를 소사에게 맡겨둔 것을 생도들이 알고 당시 박태현이 소사로부터 받아 분배하였을 것"이라고 공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구 시내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공소장에는 "계성학교의 생도는 전부 참가하였다고 생각한다"는 표현도 나온다. 다음과 같은 대목도 보인다. "수일 전 백남채가 보자기에 쓴 종이 뭉치를 건네주며 이

현을 징역 8월에 처함." "피고 박태현, 박남준, 김재소는 범의(犯意)를 계속하여 동 피고 3명과 피고 김재병, 김윤덕 이덕주는 앞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월 10일 오후 4시 30분경 동부 덕산정 시장에서 다수의 조선인과 함께 구 한국기를 모방한 기에 한국 독립만세라고 쓴 것을 붙이고 흔들며 함께 한국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운동을 하였으며 (중략) 오후 3시에 이르러 고등보통학교 생도와 미국인 경영의 사립 계성학교 생도 등을 중심으로 기타 학생 약 300명이 서문시장에 집합하고, 일부 군중이 합세하며, 수명의 주모자가 구 한국기를 휘두르며 선두에 서서 등사인쇄의 독립선언서를 살포하고, 또 각자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부르며, 행진하여 본정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경정동을 지나 동성동 삼점목에 이르렀으며, 그때 당 서원 및 대구 분대원, 경무부원 등의 응원대가 도착함으로 행렬을 막고 해산시켰음."

우리 계성총동창회보가 거의 매호마다 독립운동에 힘쓴 선배들의 기록을 살펴서 실고 있다. 그만큼 우리 계성의 정신은 민족혼을 북돋우고 개화정신을 일깨워준 겨레의 횃불인 것이다. 이번호에는 8회 박태현 선배의 독립운동 기사가 실렸다. 선배의 아들 박준환(37회) 동문은 현재 미국 LA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교 재단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조국의 명예를 만방에 드날리고 있다.

글 · 김정길(56회)

69회 졸업25주년 모교방문행사를 마치고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 가득”

“먼 곳에서부터 벼이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라” 인간관계론의 보고라고 일컫는 논어의 첫머리 학이편에 나오는 공자의 이 말씀이 이토록 큰 울림으로 와 닿은 적이 있었던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기꺼이 달려와 계성인으로서의 하나됨과 동기들 간의 우정을 확인하였던 69회 홈커밍데이 행사는 한마디로 감동 자체였다.

2년 전부터 홈커밍데이를 준비한답시고 시끌벅적 요란을 떨었으나 연초가 되도록 무엇 하나 가지적인 성과없이 날들을 보낸 우리 동기들로서는 일정이 다가오자 조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열정 하나는 동창회에서 소문난 기수였으나 생각했던 만큼의 회비도 거두어지지 않았고, 분위기도 가라앉아 많이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추원호 동기를 중심으로 한 재경동기회의 폭발적인 열정에 힘입어 69회의 저력은 날이 갈수록 힘을 발휘하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 졌으니 이것이 69회의 저력이요 본래의 모습이었다.

행사당일. 서울친구들은 전세버스 2대로, 그 외 친구들은 개인 차량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하여 2시30분 즈음에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안고 후배들의 환영을 받으며 오십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교정에 올랐다.

동기들의 가슴에는 집행부가 미리 준비한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이 명찰에는 고등학교 앨범에 있는 까까머리 얼굴들을 확대하여 큼지막하게 붙여놓아 25년의 장구한 시간들을 순식간에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큰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도 있었고, 병원을 경영하는 친구, 교수님이 된 친구, 부장판사가 된 친구, 고위공직자가 된 친구들도 있었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며 이 사회의 자기 위치에서 튼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다.

모두들 현재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였지만 누구나 자랑함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다. 모두가 계성이라는 한 울



▲ 은사님들과 함께 50계단에서 기념촬영.

타리 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안개꽃으로 자리했을 뿐...

1부 행사는 모교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탄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늘은 길 가시오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

비슷한 은사님들을 애도하는 시간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한결같은 인기를 여전히 누리고 계시는 장현순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청년계성의 모습이 면면히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

치게 도약하는 발걸음에 작지만 튼실한 벽돌하나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들이 간절하였다.

2부는 제이스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250여명으로 시작한 2부 행사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근각지에서 계속하여 친구들이 몰려들어 나중에는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없이 동기들의 발길로 행사장이 가득 메워졌다. 2부 주요 행사는 그 동안 수고한 친구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여흥이 있었다.

반별로 모여앉은 테이블에서는 옛 학창 시절 이야기로 연신 숨가쁘게 술잔들이 오고갔으며, 테이블마다 들려오는 ‘위하여’ 건배는 학창시절의 패기가 조금도 손상함 없이 살아있는 듯하였다. 초청가수를 비롯한 여러 공연이 있었지만 반별로 무대로 나가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2부 행사의 압권이었다.

다소 소란스런 분위기속에서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윤준학 동기가 휠체어를 타고 5반 친구들과 함께 단상에 나타났다. 윤준학 동기가 ‘친구여’를 선창하자 일순 장내가 조용해지더니 단상에 친구들이 어깨동무로 화답하면서 이내 모든 장내의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열싸안고 ‘친구여’를 제창하였다. 순간 장내는 운통 끈끈한 우정으로 엮어진 감동의 격정을 거침없이 토해내었다.

교가를 끝으로 공식행사는 끝이 났으며 2부 행사가 끝난 후 각 반별로 모여 다시 단란한 시간들을 가졌다. 가을밤이 이토록 즐거울 수가 없었다.

처음의 예상을 뒤엎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한 덕분에 행사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배경에는 반용석 추진위원장과 동기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들과 열정을 오롯이 헌납한 서울의 추원호 동기, 다리품을 아끼지 않고 자처해서 팔았던 김종을, 김도균, 신승철 동기 그리고 기획의 달인 조두석 동기의 노력이 지대하였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글 · 이진복(69회 · 보람회계법인 대표이사)

2년전 첫 예비모임...성과없이 허송세월 못말리는 저력으로 성공적인 행사 치뤘

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를 가르치시던 박유현 선생님을 비롯한 노쇠해진 선생님들의 모습에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저 세월이 안타까울 뿐이였으며, 먼저 작고하신 김병길 선생님을

은 대목에서는 모두들 선배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학업성과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들의 이 장학금이 지나온 계성의 100년을 담고 일어나 새로운 100년을 힘



▲ 윤준학 동기가 ‘친구여’를 선창하자 장내의 친구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열싸 안았다.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2)

계성 졸업생들 ‘정서적’이라는 세평, 60년대에도 확인되네!

배굶는 달성군 초등학생들 찾아가 성금 전달, 서문시장 화재에도 성금

1960년 7월 9일, 계원 제43호가 세상에 나온다. 1952년에 창간한 학교신문 “계원”이 벌써 43호라니!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다 지난 2007년 지금도 대구 시내 고등학교들 중에는 1년에 학교신문을 한 번도 내지 않는 곳도 많고, 체면치레로 겨우 한번 발행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계성은 벌써 50년 전에도 학교신문을 격월간으로, 그것도 40-50쪽(A4판)이나 간행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어쨌거나 자화자찬만 할 일이 아니라 계원을 읽는 일에 몰두하자. 43호의 4면을 보면 “굶는 동생들에게 손길”이라는 기사가 단연 눈길을 끈다. 사진도 게재되어 있다. 운동장에는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고, (교장선생님이 아닌) 고등학생이 단상에서 시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진이다. 시상자가 고등학생이니 그것도 신기하지만,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성의 학교신문은 과연 ‘귀하고도 귀하다’ 싶은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다. 옛날에는 사진기가 아주 귀한 보물급 소장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진을 넣은 학교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판 인쇄소에서 엄청난 공정을 거쳐야 했다.

(필자는 1970년에 중3이었다. 졸업식 당일 돈을 받고 졸업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계성동산에 몰려 왔다. 집에 사진기가 있는 아이는 거의 없었으니 모두들 가족 단위로 사진사에게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집주소를 불러 주었다. 나중에 집으로 사진을 부쳐준다고 한 때문이다. 그러나 다들 애타게 기다렸지만 사진은 집으로 오지 않았다. 사진사는 카메라에 필름도 넣지 않고 찍는 시늉만 하고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갔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졸업생들은 졸업식 기념사진이 별로 없다. 이게 다 그 당시 사진기가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기 해프닝이다.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대부분 디카며 폰카를 들고 아침저녁 사시사철 찰카찰카 찍어대는 세상이니 그런 사기 사건은 상상도 하지 못하리라.)

기사 제목은 “굶는 동생들에게 손길”이고, 부제는 ‘달성군 방면으로’이다. <(필자주: 이하, 당시 맞춤법을 그대로 따름) 소위 보리 고개에서 허덕이는 학동들을 돕는 우리의 정성은 좀 때늦은 듯한 감이 있으나 중, 고 각각 10여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6월 15일 경북내에서 가장 결식아동 수가 많다는 달성군으로 학생대표와 선생님이 함께가서 전하고 왔다. (필자주: 당시 10만환은 지금 돈으로 200만원쯤 되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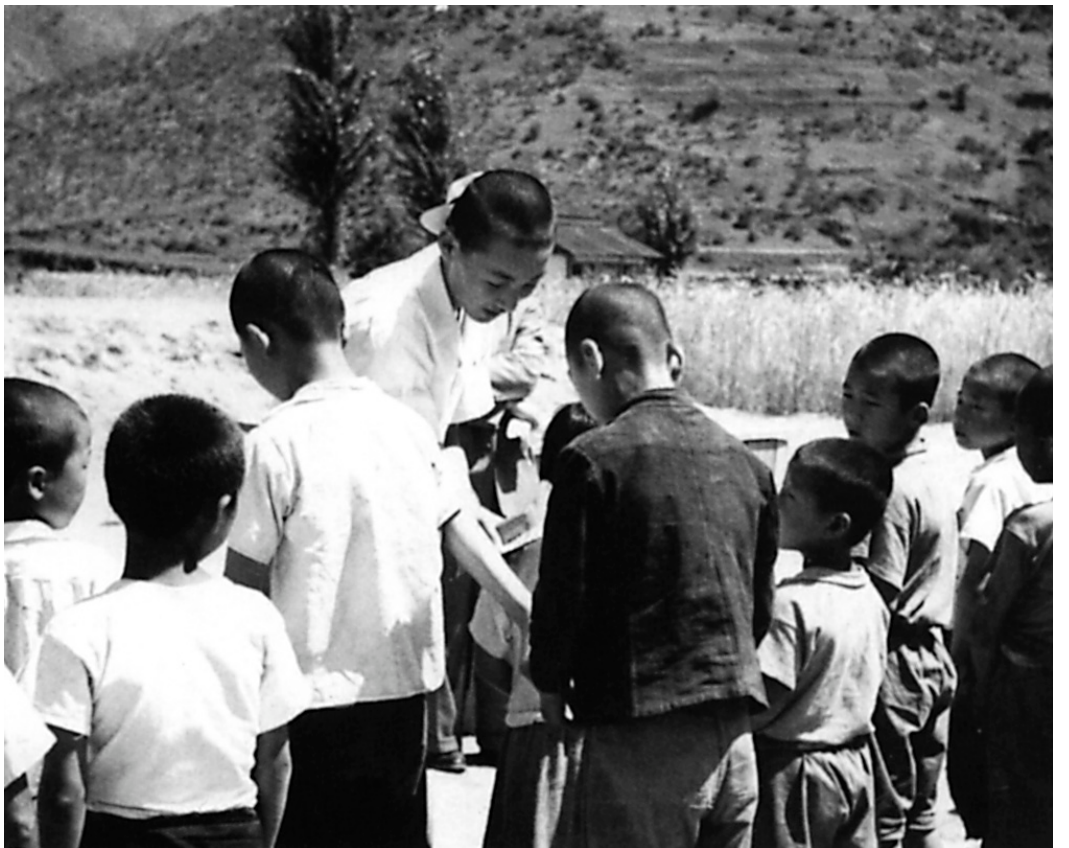
그런데 이 모금은 첫시험의 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5월 31일(화) 갑자기 마지막 시간에 계우회 대의원회 소집으로 결의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시험관계이며 중고 각각 전하고 온 곳의 형편과 경위를 살펴본다.

고등학교- 봉투에 현금으로 11만환을 가지고 경전여객으로 대신동을 떠난 것은 8시 25분이었다. 계우회 회장 최 삼랑군(필자주: 당시에는 성과 이름을 띄어서 썼다), 사진반의 황 광일 군, 계원사 기자 한 명, 김 희섭 선생님과 구지에 도착한 시간은 9시 55분 정각. (필자주: 기사를 쓴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원사 기자 한 명’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 재학생들의 겸손과 순진함이 엿보인다)

구지면 사무소에 가서 면장과 의논한 후 안내인 한 명과 구지국민학교로 향하였다. 총 학생수 중 50여명이 한끼를 못 먹고 9명은 하루 한끼만으로 지낸다고 한다. 아동들은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의 옷차림은 거의 남루하고 헤어진 것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금액 중 이 학교에 5만환을 기탁하였다. 교장선생이 아동들을 소집하여 감사의 말을 하고 간단한 계우회장의 취지사가 있었다. 구지면에서 20리쯤 떨어진 오설국민학교를 두 번째로 찾아가는 시간이 12시경. (필자주: 오설국민학교는 그 후 1994년 3월 1일 폐교되었고 학생들은 구지국민학교로 편입되었다.) 현재 학교에서는 옥수수가루로 학생들을 배불리고 있는 형편이라 한다. 또 낙동강변이라 해마다 수해를 면하기 어렵고 학교에 있는 배나무만 믿고 있다고 교장선생님은 웃어넘겼다. 마침 가정실습으로 학생대표에게 금액을 전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에게 25000환을 전하였다. (하략)

중학교- 중학교는 이보다 하루 늦게 6월 17일 같은 달성군 논공면으로 천일여객에 몸을 실은 게 9시 40분. (필자주: 당시에는 자가용이라고는 없던 시절이니 학교행사이지만 당연히 일반 시외버스를 탔다는 이야기이다.) 서용택 선생님과 중계우회장 심 보택군, 사진반의



▲ 1960년 6월 달성군 구지, 오설, 유산초등학교에 110,000환을 결식아동 구호금으로 전달하였다.

정 영달 군, 중 계우회 총무 한 기식 군과 논공면에 도달한 시간이 10시. (필자주: 고등학교 계우회가 구지면에 도착하는데는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는데, 중학교 계우회가 논공면에 당도하는 데는 불과 20분밖에 안 걸렸다니! 천일여객 버스는 날아다니는가? 기자의 착오인 듯.) 논공면에 가서 문의하였던 바 논공국민학교가 가장 결식아동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 논공국민학교에 7만환, 북동국민학교에 1만5천8백환, 금포국민학교에 5만환을 주기로 합의, 먼저 금포국민학교에 가니 말이 아니었고 건물조차 볼 모양이 없었다.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특히 서선생님의 국민학교 시절의 담임선생님이었다고 하며 이 학교는 서선생님의 재학시부터 결식아동 수가 많았다고 한다.

그 다음 찾아가 학교가 북동초등학교. 건물과 학생들의 옷차림은 거기 역시 형편없었다. 이렇게 아동들이 가난과 우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농촌생활의 참담성이 눈물겨워졌다. (하략)

“서문시장 화재에 주머니 털어- 우선 교내 피해자에 전달” 기사도 눈길을 끈다. 같은 43호 계원에 이런 기사가 연달아 실렸으니 계성의 따뜻한 마음은 진정 어디까지인가. 서문시장 화재 결과 본교 재학생 중 202명의 학생 집이 점포와 상품을 불타는 피해를 입었고, 11명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반	A	B	학년	반	A	B
1	봉서	1,630	1,030	1	봉서	1,085	780
	남	910	760		남	1,235	1,810
	남북	1,290	1,040		남북	1,005	1,090
	북	770	970		북	1,095	1,070
	합	1,130	1,060		합	820	690
2	봉서	1,440	1,050	2	봉서	590	590
	남	1,410	1,015		남	1,170	1,170
	남북	1,250	760		남북	830	830
	북	920	570		북	1,015	865
	합	1,310	660		합	1,000	1,000
3	봉서	1,650	1,070	3	봉서	675	675
	남	1,220	1,520		남	730	730
	남북	1,330	1,145		남북	905	10,30
	북				북	875	880
	합				합		
총계				총계			

▲「계원」제25호에 실린 1957년 결식아동 구호금 모금 현황

주택까지 불탔으며, 16명은 상품이 불탔다고 한다. 이에 교사, 학생들이 모두 나서서 64만5천환이라는 거금을 모아 집까지 불탄 학생은 5천환, 점포와 상품이 탄 학생은 2600환씩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아, 따뜻한 계성의 마음이어!

<다음 호에 계속>



글 · 정만진(61회)

* 편집자주

지난 호부터 ‘계성학교 교내신문 계원(啓園)’을 읽으면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을 연재합니다. 1952년부터 발행된 “계원”은 우리 계성의 자랑이자 향토교육사, 나아가 한국교육사의 귀중한 사료(史料)입니다.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은 우리 계성의 위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고 집필은 정만진(61회, 대구시 교육위원, 사진) 동문이 맡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이나 빛바랜 사진을 jgkim56@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국장 56회 김정길)로 보내주시면 동창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 유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

제철설비 전문제작 '동방플랜텍', 주력상품 시장점유율 세계2위



회장 이 동 욱(56회)



대표이사 이 승 화(65회)

제철설비 전문 제작업체인 동방플랜텍(회장 이동욱·대표 이승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2007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다.

1978년 설립돼 제철설비 및 산업기계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중견기업인 동방플랜텍은 '새천년 비전(Vision) 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동방플랜텍은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본사 및 1공장을 비롯해 달서구 대천동과 월암동에도 2공장과 3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이번에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가이드 롤러(Guide Roller)'를 비롯한 연주설비와 열연설

비, 냉연설비 등 핵심 제철설비이며, 특히 가이드 롤러는 지난해 1천3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당당히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가이드 롤러는 철강구조물 슬래브(Slab·열연강판 및 후판의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 반제품)의 지지 및 안내기능을 하는 중요한 설비 부품이다.

동방플랜텍이 생산하는 제철설비는 포스코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신일본제철, 가와사키, NKK 등 일본 기업과 미주 및 유럽지역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동방플랜텍이 수출한 제철설비는 2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 400억원의 절반으로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동방플랜텍은 건식진공펌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까지 획득했다. 건식진공펌프는 반도체, 전기전

자, 정밀화학, 제약, 플라스틱 압출 등의 공정에 이용되며,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동방플랜텍 이승화 대표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제철설비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포함한 제철설비 전 공정의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제12차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방플랜텍을 비롯해 전국 54개 상품(현재 세계

일류 27개·차세대 세계일류 27개)과 63개 기업을 올해 상반기 세계 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일류 한국상품전과 해외전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받으며, 세계일류상품 세일즈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등 해외마케팅 등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한도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우대 등 간접적인 지원도 받는다.



▲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동방플랜텍 본사 전경

포스코 사상 최연소 공장장 배진찬(74회) 동문 '파이넥스 공법' 개발 주역



1994년 군 복무와 포항공대 화공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포스코로 복귀한 20대 중반의 배진찬(74회) 파이넥스 2공장장에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모교 출신으로 포항공대 1회 졸업생인 그는 1990년 말 졸업도 하기 전에 포스코에 입사, 기술개발실에 배치됐다. 신기술 도입과 투자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는 본사 최고의 엘리트 부서였다.

하지만 4년 뒤 돌아온 그는 '파이넥스(FINEX) 추진반'을 택했다.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신기술 개발에 도전해보겠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꼬박 13년. 그는 세계 철강업계 최초로 파이넥스 개발에 성공한 주역 중 한 명이 됐다.

"입사 후 처음 맡은 과제가 '코렉스공법(COREX·파이넥스 기술의 전신)의 경제성 검토'였습니다. 이런 저런 자료를 베껴 보고서를 냈더니,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장도 제대로 가지 않고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차세대 제철 기술 연구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철강설비업체인 VAI사로부터 코렉스 설비를 들여와 짓고 있었다.

전통적인 쇳물제조법인 고로(高爐)방식은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섞어 1000~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단

한 덩어리로 굽는 소결공정과 코크스 공정을 거친 뒤, 고로에 집어넣고 쇳물을 끓인다. 사전 공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황·질소 산화물 등 환경오염 물질도 대량 배출된다.

코렉스공법은 이 사전 공정을 줄이기 위해 덩어리 형태의 철광석과 가루 무연탄을 이용해 곧바로 용융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것으로, VAI사가 개발했다. 하지만, 덩어리 철광석이 귀한데다 운송 도중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이었다.

파이넥스는 코렉스 공법의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한 기술. 철광석과 무연탄 등 원재료를 높지 않은 온도에서 작고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HCI(Hot Compacted Iron)기술과 성형탄 기술이 핵심이다. 초기부터 파이넥스추진반에 참여한 배 공장장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 12명 중의 한 명.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개발 파트너인 VAI사가 포스코가 제안한 HCI 기술과 성형탄 공정의 공동개발을 거부하자, 독자적으로 신(新)공정을 기획하는 일을 주도했다.

2002년 가까스로 기본 공정기술개발이 완료돼 연산 60만t 규모의 '시험 설비(Demo Plant)' 가동에 들어갔을 때는 당시 33세의 초보 과장으로 공장장을 맡았다. 포스코 사상 최연소 공장장이었다.

"철강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신공정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개발 과정은 지뢰밭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계속 발생해 밤 먹듯이 밤을 썼죠. 고참 엔지니어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파이넥스 기술 개발은 이후에도 고비가 많았지만, 지난 4월 연산 150만t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면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배 공장장은 시험 설비에 이어 상용화 설비도 초대 공장장을 맡아 현장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동쪽, 형산강을 내려다보는 파이넥스 공장 사무실 입구. 출입문 옆에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이승엽 선수가 한 말 가운데서 따온 것이라고 했다.

연구계와 학계의 중진으로 활약하는 동기생들이 부럽지 않느냐고 묻자, "원래 책상물림 체질이 아니었다"며 "엔지니어로서 제철 신기술의 산파역을 한 데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파이넥스는 연산 400만~500만t 대형 고로보다 경제성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지금보다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 등 숙제가 적잖다. 하지만 배 공장장은 자신만만했다. 입버릇처럼 배인 말이 튀어나왔다.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그의 사전에도 불가능은 없었다.

총동창 회장단 친선 골프모임 가져

가을비가 촉촉한 주흘산 자락에 위치한 “HOTEL WEST OF CANAAN”은 중세의 성을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로 총동창회장 및 재경 동창회장들을 맞이하였다. 국화 향기 그윽한 국화차로 담소를 나누며 13명의 회장단이 자리를 함께 한 한식당에는 조령 관문에서 채취한 자연송이향이 그득한 송이찌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병구(53회) 총동창회 부회장의 지도로 시작된 저녁자리에서 박성대 총동창회장은 먼저 이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병구(53회) 동문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계성의 가족들이 항상 동문들을 격려하고 잘 될수 있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자는 말씀을 강조하셨으며 식사 후 이병구동문의 안내로 호텔 곳곳을 둘러보았다. 기존 호텔을 인수하여 대형 세미나실 및 소형 회의실 등을 고루 갖춘 아주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호텔임에 계성인의 자부심을 새삼 느끼며 일부 동문들은 산골 주막에 마련된 2차 장소로 옮겨

서 담소를 나누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였다. 특히 내일 모임에 참석치는 못하지만 문경에 다니러 오셨던 성한기(47회) 동문께서 늦게까지 함께 자리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서 모인 동문들은 아직 내리는 부슬비를 염려하며 문경새재 자락에 위치한 GOLF CLUB으로 향하였다. 지난밤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오유인(55회) 동문과 김원조(69회) 동문이 도착하여 모두 3개팀으로 나누어 박성대 회장의 TEE SHOT으로 시작하는 순간 하늘은 언제 그랬느냐는듯 비를 멈추었고 라운딩이 진행되면서 간간히 햇살마저 우리의 모임을 반겨주었다.

11시경 모든 경기를 마치고 나오니 이한성(63회)·왕원 지검 검사장) 동문이 고향인 문경에서 모임에 참석 후 바쁜 일정에도 동문의 얼굴을 보기위해 들려주어 한껏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모임에서 현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GOLF장을 건설중인 한태동(59

회) 동문이 역시 GOLF장 주인답게 68타로 최고의 성적을 내었으며 박성대 총동창회장은 86타의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GOLF장의 양해를 얻어 다시 HOTEL

글 · 이응재 (64회)



모교 소식

■ 대구KBS ‘행복발견 오늘’ 방송출연(계성고 vs 능인고)

모교가 KBS 프로그램인 ‘행복발견 오늘’에 출연하였다.

4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KBS 대구 총국에서 마련한 프로젝트인 “세계 육상 대회를 향해, ‘달려라 2011!’”에 모교와 능인고등학교가 출연하게 된 것. 녹화는 5월 14일 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달리기 선생님들과 동문들, 재학생 등 10명이 단축 마라톤으로 수성못 주변을 3바퀴 돌아 6km를 완주하는 경기였다. 개인전 1등은 모교의 권혁준 학생이 차지하였고, 단체전 1등은 능인고가 차지하였다.

■ 교육환경 개선 사업

모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6월에 교무실 책상을 전량 교체하였고, 강당에서의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강당바닥을 보호하는 매트도 구비하였다. 또한, 교육청 지원금과 학교예산, 뜻있는 동문이 기탁한 발전기금 그리고 법인지원금 등을 합하여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교 전 선생님께 노트북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본교 맥퍼슨관(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 46호)의 지붕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문화 관광과에서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붕 보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주)동

광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약 2억원의 공사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 서울대 수시모집 지원현황

2008학년도 입시에서 모교는 서울대학교 수시 2학기 지역균형 선발에 3명이 지원하여 이미 1차 합격이 되어 있고, 특기자 전형에도 11명이 지원하였는데, 이 경우 1차 발표는 수능 시험 바로 다음날인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 교사 수상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모교의 몇 분 선생님이 여러가지 수상을 했다. 우선 장현순(독일어) 선생이 교과지도 분야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박현규 (영어)선생이 교과지도 우수 교사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한편, 과학과(화학) 최주영 선생이 대구광역시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모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에 따라 지도교사상(2등급)을 수상했으며, 평소 꾸준히 시작 활동을 해오던 황태면(국어)선생이 올해 “한국 문학세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또한 중견 서예가로 활동하던 박병일선생이 대구 서예대전과 삼성현 예술대전의 서예부분 추천작가로 선정되었다.

■ 서문시장 상인을 위한 무료 영어강좌

“What brought you to Korea?” “I’m here on business.”

지난 6월 어느 날 오후 모교 음악실은 중장년층 수강생들의 생활영어 회화공부 열기로 후끈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모교와 함께 개설한 ‘서문시장 상인을 위

한 영어 무료강좌’로, 수강생은 대부분 40~60대의 나이가 지긋한 서문시장 상인들이었다. 이 강좌의 당초 예상정원은 30명이었으나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다. 출석률도 100%에 가까웠다.

최태경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은 “최근 서문시장에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동안 영어가 짧아 애를 먹었다. 간단한 생활영어, 판매와 관련한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상인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때 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생활영어를 공부한다”고 말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회장 최태경)는 지난 6월부터 문을 연 서문시장 상인 대상의 영어강좌 졸업식을 8월 24일 모교음악실에서 가졌다. 이날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모교에 결식학생을 위한 성금도 전달했다. 이 강좌에 대한 내용은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 대외 수상 실적

* 이름 뒤()는 학년임.

* 유도 부문

• 제 78회 YMCA 전국 유도 대회 : 1위 - 송수근(3)(-90kg), 3위 - 하철혁(1)(-100kg)

• 홍콩 국제 유도 대회 : 2위 - 송수근(3)

• 35회 춘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 연맹전 : 1위 - 송수근(3)(-90kg), 2위 - 구상규(3)(-100kg)

• 2007년 직지컵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 : 2위 - 구상규(3), 3위 - 송수근(3)

• 2007년 대만 국제 유도 대회 : 1위 - 송수근(3), 2위 - 구상규(3), 3위 - 김보림(3), 이광민(3)

* 볼링 부문

로 돌아온 일행은 이병구 동문이 준비한 소꼬리탕을 맛있는 장소에서 맛있게 먹고 기념 촬영을 한 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 모임을 주관하여 준 이병구 동문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참석하신 회장단에 반가움과 고마움을 함께 전한다.

• 제2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한볼링대회 : 2인조 준우승-김상필, 5인조 우승-윤대인(3), 김한국(2), 김상필(2)

• 제13회 대구광역시 볼링 협회장배 춘계 볼링 대회 : 3위-이진표(1)

• 제26회 대한 볼링 협회장배 전국 남녀 종별 볼링 선수권 대회 : 2인조 3위-윤대인(3), 김상필(2), 5인조 3위-윤대인(3), 김상필(2), 김한국(2), 김도연(1), 이진표(1), 나성원(1)

• 제9회 대한 볼링 협회장배 전국 볼링 대회 : 개인전 준우승-윤대인(3)

• 제18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볼링 대회 : 2인조 우승-윤대인(3)

• 제12회 대구광역시 장기 전국 남녀 볼링 대회 : 개인전 준우승-나성원(1), 마스터즈 3위-김상필(2)

• 전국체전 2인조 금메달

* 농구 부문

• 제44회 전국 남녀 농구 대회 : 미기상-노승준(3), 단체 3위-노승준(3), 정봉영(3), 김민성(3), 우덕무(3), 권혁준(3), 임종일(2), 이민규(1), 송병준(1), 김영규(1), 이동규(1), 김재환(1), 김성환(1)

• 제2회 고려대 총장배 전국 고교 농구 대회 : 단체 3위-노승준(3), 정봉영(3), 김민성(3), 우덕무(3), 권혁준(3), 임종일(2), 송병준(1), 김영규(1), 이동규(1), 김재환(1), 김성환(1), 김종민(1), 강신규(1), 리바운딩상-노승준(3), 감투상-정봉영(3)

• 전국체전 동메달

* 기타 부문

• 유관순 햇불상-김보영(2)

• 영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서예실기대회 : 특선-신보경(2)

• 대구광역시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 생활과학 I부 은상-차대준(1), 생활과학 II부 동상-정현욱(3), 학습용품부 동상-문기영(2)

지부 소식

◆ 재포지부

지난 10월 9일 19시 재포계성동문회 3/4분기 회의를 대이동 돈가마니에서 김현호(43회) 고문, 송종영(52회) 고문, 이성형(54회)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3개월간의 재포동문들의 근황 및 2007년

도 송년의 밤 행사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선·후배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회의결과 2007년도 송년의 밤을 12월 20일(목) 19시 웨딩캐슬(구. 귀빈예식장) 5층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포계성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포항동문들의 근황 및 간략한 재무상황, 계성을 빛낸 동문들의 간략한 소개 등을 바탕으로 동문회보를 2007년 5월 30일 1호를 시작하여 분기별 발행하기로 하였다.

◆ 재부지부



지난 5월 24일 정덕수(51회) 회장을 필두로 2007년 계성학교 재부동창회 산행대회가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 가족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회동종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기장군 아홉산의 절경을 하나도 빠지지않고 마음 속에 담고서 산을 내려와서는 허기진 배를 밤나무골식당에서 여러 동문들과 멋진 섹스폰 연주 및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선후배간의 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 들었으며, 식사후에는 기수별 족구대회로

나머지 쥬음을 불태웠다.

올해 처음으로 산속에서의 섹스폰 연주회가 동문들의 큰 환영을 받아 늦은 시간까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에는 계성학교 재부동창회 후기 이사회가 초량 노블리아 뷔페에서 이영목(40회) 고문을 비롯해서 많은 이사분들을 모시고 진행 되었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개회선언에 이어서 연말 정기총회와 송년회 일시·장소의 건과 2008년도를 힘차게 이끌어갈 회장단 선임의 건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고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안을 처리했으며, 폐회동시에 앞서 남태호(45회) 고문의 계성학교 재부동창회가 대구명문의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보다 더 번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막을 내렸다.

〈알림〉 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12월 6일(목) 부산역 옆 초량전철역 앞 노블리아 뷔페 4층에서 19:00에 부부동반 개최 예정이다.

여러 동문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섹스폰 연주회를 비롯 흥겨운 여흥의 자리가 될 것이다.

◆ 칠곡지부

10월 26일 7시 왜관소재 놀부보쌈에서 이웅상 회장과 지역국회의원이신 이인기 동문, 군의회 부의장이신 이길수 동문 등

20여명의 동문이 모여, 동문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2년동안 수고하신 이웅상 회장께서 은퇴를 하시고 계성학교총동창회 부회장으로 고생하시는 53회 홍호용 동문이 새로운 회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다.

신임 홍호용 회장은 “즐거운 칠곡계성동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재미있는 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시카고지부

시카고지부에서 총동창회 발전기금을 보내왔다. 10월 30일 시카고지부 전 회장 김광호(56회) 동문은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

는 뜻에서 성금 350달러를 송금합니다.”고 밝혔다. 현재 시카고 지부회장은 김왕기(59회), “예향”운영, 청소년문화사업), 총무는 이효섭(61회, 사업) 동문이 맡아 수고하고 있다.



◆ 제64회

△회장 : 송창동

△총무 : 심규일, 정봉남

지난 9월 14일(금) 19시 MBC사거리 감꽃한정식에서 11월 24일~25일에 거행되는 ‘졸업 30주년 행사’를 위한 전국회장단 및 동우회 회장, 전임 회장, 임원 등 40여명의 회원이 모여 결의를 다졌다. 행사는 경주힐튼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 제69회

△회장 : 반용석

△총무 : 김종율, 신승철, 김도균

지난 10월 13일 토요일 모교 및 제이스호텔에서 모교 방문행사를 은사님과 동기생 부부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 제71회



△회장 : 정만현

△총무 : 박영일, 정홍철

지난 8월 25일~26일 1박2일간 남호해수욕장 블루오션관광펜션에서 78명의 동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 하계가족야유회를 개최하였다.

◆ 제72회



△회장 : 김지웅

△총무 : 이병규, 이동엽

지난 8월 11일~12일 1박2일간 장사해수욕장에서 동기회 하계캠핑을 개최하였다. 2007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 1일 오후 6시에 그랜드호텔 별관 1층 연회장서 개최기로 하였다.



▷권정호(49회) 권동문이 10월 24일에서 30일까지 인사아트센터 2F 제2전시실에서 열다섯번째로 작품전을 열었다.

▷백창곤(50회) 엑스코(대표이사 사장 백창곤(50회)와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이사장 김영재)는 7월 20일 엑스코에

기 별 소 식

◆ 제36회

△회장 : 주 강

△총무 : 김경창, 이승하

매달 셋째주 토요일 동기회원 12여명이 장군식당에 모여 정기 모임을 가진다.

이번 10월에는 속초에 가있는 박중호 동기가 특별히 참석하여 반가움을 더해주었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제44회

△회장 : 박정석

△총무 : 김동규

지난 11월 6일(화) 동해안 해안가 도로를 관광한후, 청송 주왕산 약수터에서 동기회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 제53회

△회장 : 최진영

△총무 : 하태철

계성53산우회(회장:오태호, 총무:장규호)는 지난 9월 8일~9일 1박2일간 일본 최대의 활화산인 큐슈 아소산에서 43명의 회원이 산행을 한 후 일본 최고의 온천지구 구로가와에서 온천을 즐겼다.

◆ 제54회



△회장 : 정대현

△총무 : 김동철, 최정태

1981년 처음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해마다 경기력을 향상시켜 1988년(회장 민성재), 1989년(회장 권광인), 1990년(회장 이민수) YB팀 3년 연속우승, 1993년(회장 손수상), 1994년(회장 김중기), 1995년(회장 전경수) OB팀 3년 연속우승 후 1997년(회장 윤덕구) OB팀 우승의 성적을 기록하고 계성학교 101년 역사상 두번째로 YB팀, OB팀 6년 연속우승 동기회에 수여되는 대왕기를 ‘47회 동기회’ 다음으로 수여 받았다.

27번의 체육대회 참가 이력에서 우리 54회 동기회는 준우승이나 종목별 입상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다.

2003년 CB팀에 편입되어 4년 간의 숨고르기를 한 후 드디어 2007년도에 숨은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작전상 선수 노출방지와 체력유지를 위하여 입장식에는 우명정 부회장과 최정태 총무 2명만 참석하게 한 것이 주요하여 오후 ‘줄다리기’ 경기에는 수직 열세에도 불구하고 8번 연속 휴식 없이 출전하고 우승을 쟁취하였다. 또한 선수 체력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목우회원’들께서 활력과 정력에 좋다는 즉석 부추전과 새송이버섯 구이를 제공하여 주었다.

문자 그대로 당일은 사기충천 화기에 애기세등등의, 한마디로 ‘바로 이 맛이야’의 ‘54회 동기회’의 ‘54회 동기회’에 의한 ‘54회 동기회’를 위한 하루(?)였다.

이 모든 과정과 성과는 전체 동기회원과 가족들의 동기회에 대한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부상 7Box를 배분한 후 뒤쫓이는 40여명이 두류네거리 ‘진성복어불고기식당’에서 하고 마무리는 20여명이 ‘아리랑호텔’ 노래방에서 하였다. 동기회원 및 가족 여러분 건강히 지내시다가 12월 7일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 제55회

△회장 : 김태호

△총무 : 박수향

지난 9월 14일 오후 7시 송나라집에서 55회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다.

◆ 제58회

△회장 : 이재천

△총무 : 이승현, 김은홍

주제 58회 가족산행 및 사랑방이 11월 4일(일) 오전 8시에 신불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뒷쫓이는 영천 보영식육식당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산행에 참가 못한 동기들은 몽팡 뒷쫓이에 나오시길(사모님 모시고)... 이번 뒷쫓이집 사랑방은 김태선, 최영욱 두분 전임 회장님이 쏙니다.

◆ 제61회

△회장 : 예병국

△총무 : 배영호

지난 8월 12일~13일 1박2일로 충북 제천 덕동분교에서 40여명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61회 단합대회를 가졌다.

12월 5일에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질

노 동문을 선정했다.



▷김광원(46회) 지난 9월 19일 오후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 경선에서 이인기의원을 누르고 차기 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예정이다. 장소는 미정.

◆ 제62회



△회장 : 오창길

△총무 : 방인철

지난 7월 22일 일요일 무대 금호가든에서 야유회 겸 단합대회를 가졌다.

◆ 제63회



△회장 : 안승철

△총무 : 이종원, 이성율

지난 9월 14일(금)에 ‘동기회 4분기 이사회’를 영남별장에서 30여명의 동기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동기회보 제작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총동창회체육대회 참가계획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9월 20일 ‘계성63회 동기회보’를 발간하였다. 전국에 있는 동기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기회보를 해마다 거르지 않고 만들었는데 올해로 16호(열여섯번째)를 발간하게 되었다. 금년에도 많은 동기생들의 원고를 모아 한 권의 동기회보를 만들었다. 회보에는 전국에 있는 동기생들의 소식과 동기회 동정, 동아리 소식, 각종 칼럼, 행사보고, 모교소식, 동창회소식, 회원 및 은사님 주소록, 광고 등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실었다. 분량은 78쪽이고 650부를 발행하여 전국에 있는 동기생들에게는 물론이고 모교와 동창회사무실에도 배부하였다.

계성63회 송년의 밤 및 정기총회를 그랜드호텔에서 2007년 12월 8일(토) 오후 6시30분에 가질 예정이다.

당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당에는 더 이상 친이-친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또 선거대책위 구성과 관련, “중앙당이 지역중심의 선대위 구성을 밝힌 만큼 도당도 대선의 전위부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23개 시·군별 밀바닥 조직 강화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인 물 정

▷노영하(38회) 대구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제27회 대구시 문화상 수상자로

서 경북도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석회(50회) 6월 28일 열린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전무이사(농협중앙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지난 69년 농협중앙회 부산시지회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박동문은 칠성동지점 및 두류지점장, 달성군지부장, 경북신용사업부장, 대구지역본부장, 경북지역본부장을 거쳐 2000년 7월 상무로 승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를 거쳐 2005년 8월부터 농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해 오고 있다.

1944년 대구 출신으로 산업포장과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이승한(52회) 삼성테크놀로지 사장은 한국표준협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2007 대한민국 창조경영인상'을 수상했다.

7월 1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시상식에서 이동문은 한국 고객에게 맞는 한국식점포를 창조, 새로운 유통기법과 신기술로 업계를 선도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 상을 수상했다.

▷박두익(53회)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대표 박두익)은 9월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4회 전국 청소년가출예방 관련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박정룡(53회) 대구 상인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다.

▷신재학(53회) 구미시 새마을회장(구미 고려병원장)이 10월 5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받았다.



▷손수상(54회) 한국-카자흐스탄협회는 6월 26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각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열고 손수상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을 대표로 선임하였다.



▷김석준(56회) 김의원 이(경실련 17대국회 3년 분석결과) 법안가결건수 전체 국회의원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재운(56회) 지난 7월 27일 오후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임원 이·취임식에서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황기철(56회) 지난 10월 11일 제14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익환(56회)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움"을 대경포럼 공동대표인 김동문의 진행으로 지난 10월 16일 계명대학교 바우만관에서 개최되었다.

▷박찬희(56회) 지난 10월 2일 수성호텔에서 한국JC특우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동철(56회) 지난 10월 19일 S-oil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배규한(57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복직하였다.

▷손영진(58회) 손 동문이 경영하는 (주)콘스텍이 2007 대한민국 건설기술상(건설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정수만(58회) 8월 인사에서 구미여고 교감에서 상주 모서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김우구(58회) 한국수자원공사 인사발령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 받았다.



▷윤석용(58회)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오후1시 올림픽공원내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한나라당 장애인 비전 전진대회를 가졌다.



▷이용두(58회) 대구대학교 총장은 7월 17일 몽골 오르홍(Orkhon)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동문은 몽골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행정 등의 지원과 한-몽골간 교육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대는 오르홍 대학교와 2003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양교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8월 2일 KT대구본부 4층 대강당에서 KT임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인재 양성'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김도현(58회) 양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에서 서울 남대문세무서 법인세 과장으로 발령 받았다.



▷임병현(60회) 대구 남구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개소식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임병현 남구청장과 상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명시장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16억7천억원을 들여 완공됐으며 35면의 주차시설을 갖췄다.

또한 임 동문은 10월 6일 오전 10시 30분 신천둔치에서 대구지역 최초로 열린 제1회 남구복지박람회에 참석,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수인(60회) 검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이 동문이 대전지방 검찰청 집행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장상현(60회) 기업은행신탁사업단장에서 여신기획본부장겸 위기관리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국희(60회) 공군대령이 지난 8월 1일 이스라엘 대사관 무관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하여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김순태(60회) 주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지난 8월 21일 주 브라질 대사관 상과 울루 총영사로 취임하였다.

▷이병욱(60회) 지난 9월 1일 대구 서부교육청 장학사에서 대구 해서초등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류필수(60회) 지난 9월 1일 경북교육청 중등과 장학사에서 경북 경주 안강전자고등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이재동(60회) 지난 10월 1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내과 과장에서 충주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권병두(60회) 대구 덕원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김영태(60회) 울산 화봉중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김영준(60회) 지난 10월 1일 대구지방 국제청 징세과장에서 조사2국 조사1과장으로 취임하였다.

모교 정인표(56회) 교장, 대구교총 회장 선거 출마



모교 정인표 교장(56회)이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대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다.

10월 19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호 2번을 배정받은 정교장은 "선생님께서 중심이 되는 대구교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를 걸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11월 26일(일)~12월 3일(월) 투표가 실시되면 12월 5일(수) 개표 완료 후 당선자가 발표된다.

조·중·고·대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학 력

- 대구 칠성초등학교 졸업
- 계성 중·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문리대 수학과 졸업

▷경 력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 역임
- 경신고등학교 교사/교감 역임
- 수성경찰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협의회 위원 역임
- (고등학교)제 1지구 현장장학협의회 위원장(현)
-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협의회 이사(현)
- (사)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현)
- 한국·캄보디아협회 이사(현)
- 대구교육공동체 시민연합회 운영위원(현)
- (사)아카데미아 후마나 회원(현)

부천 이시원(50회) 대표, 한국콜마 윤동한(52회) 대표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 선정, 동판 제막



이시원(50회)동문 윤동한(52회)동문



모교 50회 이시원 동문(주)부천 대표이사)과 52회 윤동한 동문(한국콜마(주) 대표이사)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에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22일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동판에는 유기준씨 등 역대 중소기업회장 10명과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로 선정된 중소기업인 41명의 얼굴 및 업적이 새겨져 있다.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 기념사업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그들의 얼굴과 공적 등을 담은 동판을 제작·전시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매년 6~7명의 중소기업 유공자를 선정해 기념동판을 제작·전시할 계획이다.

▷정순구(61회) 서울시청 산업국장으로 재직중인 정순구 동기가 2급으로 승진하였다.

▷김두환(61회) 지난 9월 1일자로 영덕종합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김해수(61회) 지난 9월 1일자로 안강북부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이강일(61회) 10월 28일 19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이 동문 지휘로 계명심포닉 밴드 연주회가 열렸다.

▷전진국(62회) KBS 예능2팀 국장으로 근무하던 전 동문이 지난 9월 20일 KBS 창원방송 총국장에 취임하였다.



▷이현희(62회) 대구경찰청 경무과장은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녹조근정 훈장을 수여받았다.

▷최병현(63회) 10월 10일 대구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정보과장(총경)으로 영전하였다.

▷이승목(63회) 앞치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이프런' 이 동문이

지난 10월 15일 '제3회 국가 상징디자인 공모전' (주관:행정자치부)에서 한복앞치마를 출품하여 입상하는 영광을 차지 하였다.

▷최찬인(64회) 대구지방법원 칠곡동기소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오근홍(64회) 오 동문(달성군 포산고교 교사)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농구 박사'가 되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논문은 '남자고교 농구선수의 경기력 결정 요인'. 오 동문은 이 논문에서 "고교 농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패스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오 동문은 "농구 경기에서 패스 능력은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며 "체격이나 체력, 심리적 요인은 패스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노주(65회)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장 취임하였다.



▷구자일(65회) 구병원 원장은 지난 10월 12일~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내치학 치료법 연구회에 참석하였다.

▷서민교(65회) 서 동문(대구대 무역학과 교수)은 8월 21일 부산 BEXCO에서 열

린 2007 한국산업경영학회 하계 통합학술대회에서 '해외투자대상국내 집적효과와 해외자회사의 생존'이란 논문으로 한국산업경영학회 '2007년도 최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김병진(65회) TBC방송국 본부장에서 (주)한국우사회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서정률(71회) 광산 공해방지 기업 (주)지오인바이로텍, 서정률 박사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이 선정하는 '21세기 훌륭한 과학자' 부문에 등재됐다.

(주)지오인바이로텍에 따르면 이 회사서 박사는 대규모 유해성 폐기물이 매립된 해안지역의 환경복원에 대한 해석 논문을 비롯해 10여편의 논문을 국제논문색인(SCI)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환경위해성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IBC에 수록됐다.

서 박사는 이미 미국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 의학 보건(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가 되어 세계 3대인명사전 두곳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영준(71회) 공군에 근무중인 박 중령이 2년간 모스크바에 연수하러 러시아로 출국하였다.

◆ 축하드립니다.

- ▷전재수(45회) 자녀 결혼(6/24)
- ▷박세환(45회) 장남 결혼(10/6)
- ▷성한기(47회) 자녀 결혼(9/15)
- ▷김윤수(47회) 자녀 결혼(9/8)
- ▷김대곤(50회) 장남 결혼(9/1)
- ▷김원기(53회) 자녀 결혼(7/14)
- ▷김도양(53회) 자녀 결혼(6/30)
- ▷김유석(53회) 차남 결혼(10/3)
- ▷우수동(53회) 장녀 결혼(10/6)
- ▷도기현(53회) 장남 결혼(10/13)
- ▷김교형(53회) 장남 결혼(9/15)

- ▷장수봉(54회) 차녀 결혼(10/6)
- ▷정창석(54회) 자녀 결혼(10/20)
- ▷채우호(54회) 장남 결혼(10/28)
- ▷손의호(54회) 영애 '민정'양의 귀국 'Viola 독주회'를 10월 11일 오후 7시 30분에 지산동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하였다.

▷김재훈(54회) 동구 진인동 201-1 '연화사' 주지로 취임하였다.(T.053-985-0355)

- ▷박민희(54회) 장녀 결혼(10/7)
- ▷정봉규(54회) 삼남 결혼(10/14)
- ▷백용기(54회) 지난 8월 31일 38년 6개월간의 교직을 마감하고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교감으로 명예퇴직하였다.
- ▷김석원(54회) '드림삼성안과'를 노랑진 서원빌딩 3층에 확장이전 개원하였다.(T.826-8760)

- ▷오동준(54회) 장남 결혼(8/25)
- ▷이태호(54회) 장남 결혼(9/1)
- ▷박지주(54회) 장녀 결혼(9/9)
- ▷고이병윤(54회) 장남 결혼(9/15)
- ▷김종윤(54회) 차남 결혼(9/16)
- ▷한계언(55회) 자녀 결혼(9/29)
- ▷안영호(55회) 자녀 결혼(11/3)
- ▷황용욱(56회) 장남 결혼(10/27)
- ▷김교형(56회) 장남 결혼(9/15)
- ▷이병윤(58회) 자녀 결혼(7/28)
- ▷이병훈(58회) 자녀 결혼(9/8)
- ▷최동광(58회) 자녀 결혼(9/15)
- ▷김태선(58회) 장녀 결혼(10/27)
- ▷김대성(58회) 자녀 결혼(10/13)

▷박철래(60회) 박 동문은 지난 8월 13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늘푸른교회」를 창립하였다.(연락처 02)449-3070, 010-4455-3070)

▷이호상(61회) 지난 7월 23일 수원시 영동구에서 테스트 인터내셔널(주)를 창업하였다.

▷설기문(62회) TV에서 자주 얼굴이 보이던 설기문 교수가 소공동 소공빌딩에 한국NLP&최면아카데미를 오픈하였다.(홈페이지 : nh114.co.kr ☎ : 02-757-8008)

▷이탁(63회) 'e-플러스' 상품권매

장을 성서에서 월배로 확장 이전하였다.

▷김종율(69회) 종합적인 자산관리 및 컨설팅업체인 (주)인베스트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성주(17회) 별세(7/11)
- ▷김인덕(46회) 별세(7/4)
- ▷노기윤(51회) 별세(7/3)
- ▷김동언(53회) 모친상(10/11)
- ▷서정태(53회) 모친상(10/20)
- ▷김대영(53회) 모친상(7/22)
- ▷김인식(54회) 부친상(9/13)
- ▷문화현(54회) 별세(10/19)
- ▷임성호(54회) 모친상(10/20)
- ▷서재권(54회) 장인상(7/19)
- ▷이춘식(54회) 별세(8/16)
- ▷서은수(55회) 모친상(10/9)
- ▷윤재락(55회) 조모상(7/19)
- ▷김대현(55회) 부친상(7/26)
- ▷정기재(55회) 별세(8/6)
- ▷변희창(55회) 모친상(8/10)
- ▷김재복(55회) 장인상(9/4)
- ▷김찬석(55회) 장모상(10/13)
- ▷강승훈(56회) 별세(8/3)
- ▷조원희(56회) 모친상(8/13)
- ▷김성수(56회) 부친상(9/18)
- ▷이은우(56회) 부친상(9/18)
- ▷윤경환(58회) 장인상(7/10)
- ▷김상호(58회) 모친상(7/18)
- ▷유재률(58회) 별세(8/26)
- ▷이태진(58회) 부친상(9/12)
- ▷정면득(58회) 장인상(10/3)
- ▷서천수(58회) 모친상
- ▷이종복(59회) 모친상(7/15)
- ▷이동길(59회) 부친상(8/27)
- ▷박형건(59회) 모친상(8/28)
- ▷전진우(59회) 모친상(10/14)
- ▷이영두(61회) 부인상(10/19)
- ▷박충호(61회) 모친상(6/15)
- ▷유진(61회) 부친상(6/27)
- ▷김종선(61회) 장인상(9/3)

- ▷이덕진(61회) 부친상(9/12)
- ▷이순동(61회) 부친상(10/2)
- ▷이재일(61회) 모친상(10/4)
- ▷최광우(61회) 부친상(10/12)
- ▷김홍섭(62회) 모친상(7/1)
- ▷곽우섭(62회) 부친상(7/23)
- ▷허상진(62회) 모친상(7/23)
- ▷이효근(62회) 장인상(8/3)
- ▷김팔동(62회) 모친상(8/5)
- ▷서원경(62회) 부친상(8/12)
- ▷곽정오(62회) 모친상(8/18)
- ▷박재만(62회) 모친상(8/21)
- ▷윤성호(62회) 모친상(9/11)
- ▷이광운(62회) 장인상(10/30)
- ▷정국열(63회) 모친상(7/14)
- ▷양규지(63회) 부친상(7/16)
- ▷조무호(63회) 모친상(7/17)
- ▷이일우(63회) 모친상(7/28)
- ▷최순호(63회) 부친상(7/31)
- ▷황규재(63회) 부친상(8/2)
- ▷최광로(63회) 모친상(8/17)
- ▷최재경(63회) 모친상(8/19)
- ▷도기득(63회) 장모상(8/26)
- ▷이승택(63회) 모친상(8/27)
- ▷박흥서(63회) 부친상(9/18)
- ▷박병선(63회) 모친상(9/24)
- ▷이광우(63회) 장인상(10/16)
- ▷김홍갑(65회) 부친상(8/11)
- ▷지윤만(65회) 부친상(8/23)
- ▷김현길(65회) 빙장상(9/16)
- ▷류인환(65회) 별세(9/23)
- ▷박종양(65회) 부인상(10/7)
- ▷김제울(65회) 장인상(10/12)
- ▷강동구(65회) 부친상(10/18)
- ▷배명근(65회) 모친상(10/25)
- ▷양규용(70회) 부친상(9/27)
- ▷김성필(70회) 부친상(10/29)
- ▷신한식(71회) 부친상(9/1)
- ▷천해원(71회) 빙부상(7/5)
- ▷김기훈(72회) 모친상(8/18)
- ▷한승호(72회) 모친상(8/4)
- ▷유성현(74회) 모친상(8/22)
- ▷한윤수(74회) 부친상(8/13)
- ▷권혁재(78회) 조모상(10/25)

계성유도 동문 체육대회 모교에서 열려

2007년 6월 3일 계성유도 가족 동문 체육대회가 본교 유도장 및 농구경기장에서 1~2부로 나누어 가족동문 120여명이 참석하여 선후배들과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1부 행사중 서종근(53회), 박종률(77회) 동문이 유도의 기본인 (본)기술 교본실습을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고, 졸업생, 재학생과의 친선 유도 경기를 하였다.

오늘 행사중 김진도(55회) 경영학 박사, 대한 유도회 부회장을 계성유도 동문

회 고문으로 추대하였고, 이상태(58회) 동문이 대한유도협회 공인 8단으로 승단하는 경사를 맞이하였다. 또한 84년 LA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안병근(68회) 동문과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경근(68회)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본교재학생(고등학교), 용인대학총장배 전국유도 대회에서 최근 15년만에 우승을 하여 더욱 더 가족동문 체육대회를 빛나게 하였다.

계성유도 화이팅!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

www.dgkids.co.kr

원장 김 주 회 (70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200-13 태오빌딩 TEL. (053)473-4800

동문시단

녹색 폭포 앞에서

정원호 (60회)

씻기우고 다듬질 되는 저 물보라의

함성에 하늘 넘쳐 튀어오르는

녹색 빛 천년의 폭포

앞에서는 절로 두 눈이 감긴다.

까마득 고공을 지향하는 새 소리

하룻생명들의 활기에 찬 숨소리

바람소리에 에워싸인다.

아!

이 부드러운 소리의

무한한 힘에

여기 한 산이 꿈에 부풀어

나울거리니.



- 「우리문학」으로 등단
- 약사 문학상 수상
- 대구시 약사회 회보 편집 위원장 역임
- 죽순동인
- 한국 현대 시인협회 회원
- 구세약국 경영중

동문여러분의 따뜻한 情을 기다립니다

두 눈의 실명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고 의연한 삶을 보내는
“최상도(54회) 동문에게 우리 모두 관심을 보냅시다.”

70년대 후반 영대 상대 졸업직후부터 뇌종양으로 시신경이 마비되어 두 눈을 실명한 최동문은 지금까지 혼자 영천 금호읍에서 지체장애 1급의 기초 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기자의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입니까?”란 질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하는 최동문의 담담한 응답은 묻는 이에게 도리어 머쓱한 마음을 안겨준다.

점점 추워가는 이 계절에 좀더 파스함을 최동문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뒤돌아서 나온 발길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총동창회 사무국 : T.053-255-3900

* 최 동문 연락처 : 영천 금호읍 오계2리
T.054-334-0388

* 후원계좌 : 005-08-030477-9
(대구은행, 계성총동창회)

* 입금후 반드시 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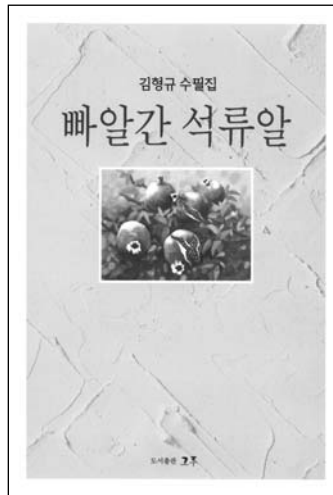
김형규(45회) 교수 출판기념회 및 미술전시회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활동 계속할 것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규(45회) 동문의 두번째 수필집 『빠알간 석류알』 출판기념회 및 미술전시회가 2007년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앞산 대덕문화전당 제1 전실에서 동창회, 모교, 경북대학교 교수, 대구시, 교육계 인사를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회는 저자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 격려사, 서평에 이어 특별순서로 독창, 중창 등이 이어졌다.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이기도 한 김형규 동문은 『문학세계』의 수필 추천을 받아 등단했으며, 수필집 『어머니의 그림자』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의 수필집 『빠알간 석류알』은 제1수필집 이후 틈틈이 써 둔 것을 엮었으며 ‘새벽닭 울음소리’, ‘하이얀 박꽃’, ‘노란 미소’, ‘지란지교를 그리며’ 등 4부로 되어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찾아낸 소재를



작품으로 만든, 서정성 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날 미술전시회는 김형규 동문이 경북대학교 퇴직후 5년간 미술학원에서 여가를 이용 습작한 것으로 전시된 유화 43점은 기성 화가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규 동문은 수필과 미술 외에 서예와 가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생활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대화와 작품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 취미생활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향후 작품내용을 더욱 고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 동문은 “전시회를 조그맣게 하려고 했으나,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규모가 커졌다”며 앞으로 창작활동을 통해 ‘글 속에 깔려가 있는, 수준 높은 글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루출판사

168면, 신국판 / 정가 8,000원

“사진소설 써 볼랍니다”

정만진(61회) 대구시교육위원 세번째 사진전

“사진에 심취하면 서부터 아침에 일어나 자마자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 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사진이 그렇게 차이가 날줄은 몰랐지요. 세상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소설가라서 그런지 ‘눈으로 쓴다’는 생각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앞으로 사진과 글이 융합된 사진소설을 써볼까 구상 중입니다.”



년대 낡은 필름카메라에서 튀어나온 그의 사진들은 일요사진작가들이 사진공모전 입상을 위해 찍어대는 ‘결작주의 사진’과는 확연히 달라 보인다. 이야기 엮듯 주제를 가지고 찍은 일련의 사진 속에는 평소 그가 가진 삶의 철학과 사상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정 동문이 사진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2003년 친한 친구로부터 70년

대 유행기종이었던 35mm 펜탁스KM 카메라를 선물받고 난 뒤부터다. 카메라에 필름을 감을 줄도 모르던 그는 카메라가 생기고부터 사진의 매력에 푹 빠졌다. 노출, 초점 등 기본적인 테크닉은 동네 사진관 아저씨로부터 전수하고, 사진 이론은 독학으로 터득했다.

2004년에는 ‘금강산’이란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열어 사진전 수익금 320만원 중 160만원은 북한 용천폭발사고 성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이 실시한 난치병 아동돕기 운동에 보태기도 했다. 또 2006년엔 앞산 달비골에서 ‘앞산’을 주제로 거리 사진전을 열어 환경생태보전에 대한 포토캠페인을 펼쳤다. 정 동문은 앞으로 틈틈이 이 땅의 문화재와 역사유적 등을 사진으로 기록해 생생한 자료로 남길 생각이다.

“예술은 수용자의 시각과 안목에 따라 각기 달라 보이지요. 세상 모든 예술을 전문가만 누린다면 보통사람은 할 게 없잖습니까?”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입지를 굳혀가는 그의 역할이 기대된다.

〈영남일보 박진관 기자 보도〉



전체전경

Coffee Shop

객실

야외원형극장

호텔동, 연수, 야외원형극장이 별동되어 있는 유럽풍의 고품격 가족 호텔

자연 속의 여유, Hotel West of Canaan

- △ 수려한 자연환경과 격조 높은 인테리어의 절묘한 조화와 방마다 다른 풍광을 갖춘 아름답고 안락한 객실
- ★ 계단식 대강당과 다양한 세미나룸, 첨단 멀티미디어 기자재로 구성된 최적의 연수시설
- ☀ 다양한 공연, 행사, 파티 를 할 수 있는 야외원형극장과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문의 전화

043) 833-8814~6

회장 이 병 구(53회 · 충동창회 부회장)

• 호텔 웨스트 오브 가나안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1 • 홈페이지: www.westofcanaan.com



크리에이티브동 대강당

VIP 회의실